



제도경제 브리프

Institution and Economy Brief
Current Issue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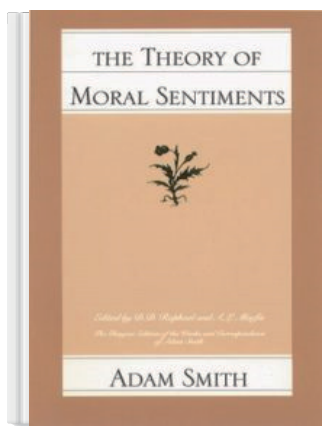
KIEA (사)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년 5월 4일, 제6호

Institution matters!

애덤 스미스, 인간의 ‘도덕감정’에 대해 이론을 세우다!¹⁾

이성규 <<제도경제 브리프> 편집책임자,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를 ‘경제학자’(economist) 또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1776년 쓴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 아니라, 이보다 17년 전에 출간된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에 관한 책인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었다.

『도덕감정론』은 정확히 1759년 4월 26일에 출간되었다. 당시 이 책의 출간은 ‘**센세이션**’²⁾(sensation)을 불러일으켰고, 애덤 스미스를 ‘**귀중한 지적 재산**’(hot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만들었다. 도덕가들과 윤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어떤 인간 행동을 도덕적으로 좋게(morally good) 만들고, 다른 행동을 도덕적으로 나쁘게(morally bad)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즉, ‘**도덕적 행동 유인**’)를 알아보기 위하여 갖은 애를 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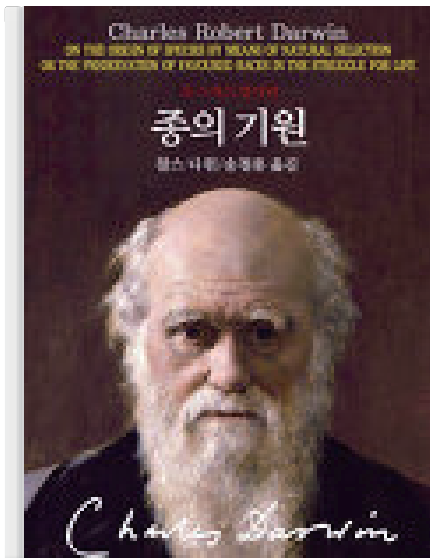
먼저, 대중들을 지배하거나 지적 논쟁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직자들의 경우 그 대답은 쉽고 분명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성직자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과학의 시대(age of science)가 도래하자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커져 나갔다. 심지어 회의론자들은 다른 설명들을 해석여 찾았다.

다음으로 등장한 ‘**통속적인 이론**’(popular theory)은 사람들은 ‘**도덕적 감각**’(moral sense; **도덕각**(道德覺))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다섯 가지 감각(感覺) - 시각(視覺), 청각(聽覺), 후각(嗅覺), 미각(味覺), 촉각(觸覺) -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 감각**’(moral sense)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즉시(그리고 어떻게든지) 알아내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듯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런가? 그러한 도덕적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상이한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 다른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Eamonn Butler, “Theorising around *Moral Sentiments*”, *Adam Smith Institute blog*, 26 April, 2021.

2) 센세이션(sensation)이란 ‘많은 사람을 갑자기 흥분시키거나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현상’을 말함.

셋째로, 물론 다른 이론들도 있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기존 이론들과 다른 획기적³⁾ 주장(breakthrough)을 내놓았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은 사회적 피조물(social creatures)로서 인간의 바로 그 심리(心理) – 즉, “사회적 심리”(social psychology) – 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인류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한 “자연적 동정심”(natural sympathy; 오늘날 용어로는 ‘공감(共感, empathy)이라고 부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획기적 생각들이었다. 인간의 ‘**자연적 동정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예를 들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같이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한다. 또한 **자연적 동정심은 우리가 ‘보편적 이익’(general good)을 가져다주도록 행동하게끔 한다**. 왜 그런가? 우리는 우리가 ‘옳은(right)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 즐거워한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그릇된(wrong)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에 괴로워한다. 그 결과 인간은 보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애덤 스미스는 다윈(C. Darwin)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년)이 출간되기 정확히 100년 전에 『도덕감정론』(1759년)을 저술하였다. 그로 인해 애덤 스미스는 ‘왜 우리(인간)가 이처럼 꽤 유용한 **사회적 심리(social psycholog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진화론’⁴⁾ (evolutionary theory)을 사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을 저술할 당시에는 아직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애덤 스미스는 **그러한 사회적 심리를 “섭리”**⁵⁾ (Providence)라고 불렀다. 애덤 스미스의 절친한 친구 데이비드 흄(David Hume)도 『인간 본성론』(Treatise of Human Nature)의 마지막 절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였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사회적 심리가 우리 인류에게 ‘보편적 이익’(general benefit)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을 확신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그러한 **사회적 심리**를 오늘날 우리가 “**자연선택**”⁶⁾ (natural selection)이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회적 심리가 지속된다는 말은 ‘도둑들 간에도 의리가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악(邪惡)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꽤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도둑들도 서로 간에 의리를 지키며 (즉,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며) 도둑질을 한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 유인〉

주장자	도덕적 행동 유인
성직자들	하나님의 말씀
통속적 이론	도덕적 감각(도덕감)
애덤 스미스	사회적 심리와 자연적 동정심 (섭리 또는 자연선택)

주: 저자가 만든 표임.

3) ‘획기적’(劃期的)이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열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말함.
 4) ‘진화론’(進化論)이란 ‘모든 생물은 극히 원시적인 종류의 생물에서 진화해 왔다는 다윈(C. Darwin)의 학설’을 말함.
 5) ‘섭리’(攝理)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말함.
 6) ‘자연선택’(自然選擇)이란 ‘자연계에서 생존 경쟁의 결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일’을 말하며, ‘자연도태’(自然淘汰)라고도 함.

『도덕감정론』은 출간 즉시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도덕감정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는 세상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 서술에 사용된 **산문**⁷⁾(散文)도 그 당시로서는 매우 우아하였다. 또한 종종 거만하고 전제하는 다른 도덕이론가들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비난은 절묘하다고 여겨졌다. 무엇보다도 『도덕감정론』의 출간으로 애덤 스미스는 당시 주요 지식인이자 영국 정부의 관리인 찰스 타운센드(Charles Townsend)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당시 타운센드는 애덤 스미스의 친구인 데이비드 흄(D. Hume)에게 애덤 스미스를 자신에게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로 인해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을 그만두고 타운센드의 어린 의붓아들인 부클루치 공작(Duke of Buccleugh)의 **가정교사**(tutor)가 되었다. 그 대가로 애덤 스미스는 매우 후한 평생 수입(收入)을 보장받았다. 가정교사직을 수행하면서 애덤 스미스는 어린 부클루치 공작과 함께 **유럽 대여행**⁸⁾(grand tour)을 가게 되었다. 유럽 대륙을 여행하면서 애덤 스미스는 유럽의 몇몇 주요 지식인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의 다양한 산업들과 일하는 방식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특히 애덤 스미스는 유럽 대륙을 여행하면서 '새 책' 저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애덤 스미스가 쓰려는 새 책은 이번에는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심리'**(human social psychology)의 또 다른 부분인 **'경제학'**(economics)에 관한 것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들(ideas)과 자신이 모은 방대한 양의 경제적 사실들

(economic facts)을 그 유명한 『국부론』이 될 책으로 바꾸고 서술하는데 무려 10년 이상(정확히 17년)이 걸렸다. 『국부론』으로 애덤 스미스(1723~1790년)는 마침내 자신의 명성을 그의 생애(生涯)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서거한 후 수세기 동안에도 확실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명성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7) '산문'(散文)이란 '글자의 수나 운을 따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는 보통의 문장'을 말함.

8) '대여행'이란 '옛날 영국의 귀족 자제가 교육의 마무리로서 하던 유럽 여행'을 말함.

발행처 : (사)한국제도·경제학회

발행인 : 김승욱

편집책임자 : 이성규

편집위원 : 이상학, 김행범, 송정석, 김영신

연락처 : (휴) 010-9800-7211, (이메일) skl62@hanmail.net